

蘇辛詞 題序의 창작 특징 비교

金 恩 景*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IV. 小品文으로서의 題序 비교; |
| II. 社交詞의 題序 비교; 記實性 | 文學性 |
| III. 屢적 및 은거시기의 題序
비교; 抒情性 | V. 나가며 |

I. 들어가며

唐五代와 北宋初期의 詞人들은 題序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詞의 내용이 詞調와 일치하여 별도의 제목이나 부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송의 詞人 黃昇은 “唐詞는 題(詞牌)에 따라 지은 것이 많은데, <臨江仙>은 神仙의 일을 말하고 <女冠子>는 女道士의 모습을 적었고, <河瀆神>은 사당을 읊어, 대체로 本題의 뜻을 잃지 않았다. 이후에 점점 변하여 題(詞牌)와 멀어졌다.”¹⁾고 하였다. 또 《欽定四庫全書總目》에서는 “《花間》 諸集을 살펴보면 흔히 調가 바로 題인데, <女冠子>가 女道士를 읊고 <河瀆神>이 送神曲과 迎神曲이 되고 <虞美人>이 虞姬와 같은 이를 읊은 것과 같다. 唐末五代의 많은 詞가 원래 이와 같았다. 후인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외래교수

- 1) 黃昇《花菴詞選》卷一“唐詞多緣題, 所賦<臨江仙>則言仙事, <女冠子>則述道情, <河瀆神>則詠祠廟, 大概不失本題之意. 爾後漸變, 去題遠矣.”
施鰲存, 《詞學名詞釋義》, 中華書局, 1988, 92쪽.

들이 제목을 붙여 읊은 것이 점점 다양해져서 題와 調 두 가지가 전혀 관련이 없어졌다.”²⁾고 하였으며, 陳廷焯은 “唐五代之 詞는 모두 題가 없고 調가 즉 題이다.”³⁾라고 하였다.

그러나 詞體 文學이 성숙해짐에 따라 사조는 계속해서 형식화되어 曲調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 原詞의 내용과는 점차 무관해 졌다. 施鰲存은 “詞의 작용이 확대되어 문인학사들이 감정과 회포를 푸는 일종의 신흥문학의 형식이 되었으므로 사의 내용, 의경, 제재가 모두 복잡해졌다. 때로는 사의 문구만 보아서는 왜 지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⁴⁾라고 하여 사패의 본의가 점점 사라짐을 언급하였다. 그래서 작가들은 다양한 제재와 내용의 詞意를 표현하기 위해 사패 아래에 제목을 달거나 부가적인 설명을 적기 시작하면서 作詩의 한 요소인 題序를 사에서도 쓰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제서를 통칭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題와 序는 다르며 학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題序의 기본 정의는 施鰲存의 의견이다. 즉 “간단하고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詞題라고 한다. 만약 한 단락의 비교적 긴 글로 사를 적은 원인을 설명하거나 또한 약간의 詞意를 설명한 것을 詞序라고 한다.”⁵⁾는 구별이다. 이 외의 다른 정의를 살펴보면, 《中國詞學大辭典》에서는 “사는 제목이 있는데 어떤 것은 사조의 본의에 맞게 지어서 사조명과 사의가 서로 부합하여 詞調가 곧 詞題이다. 어떤 것은 詞調와 무관하여 詞意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詞調 외에 주를 첨가하거나 小序를

2) “考《花間》諸集, 往往調卽是題, 如《女冠子》則詠女道士, 《河瀆神》則爲送迎神曲, 《虞美人》則詠虞姬之類. 唐末五代諸詞, 例原如是. 後人題詠漸繁, 題與調兩不相涉.”

《欽定四庫全書總目·卷一百九十八·集部五十一·詞曲類一·克齋詞一卷》, 中華書局, 1997, 2793쪽.

3) “唐五代詞, 皆無題, 調卽題也.” 唐圭璋編, 《詞話叢編·詞壇叢話》, 中華書局, 2005, 3740쪽.

4) 施鰲存, 《詞學名詞釋義》, 中華書局, 1988, 93쪽.

5) 같은 책, 94쪽.

씀으로써 사의를 설명한다. ……詞序는 즉 비교적 길고 사를 적은 원인을 설명하며 또한 그 詞意를 약술한다.”⁶⁾고 하였다. 또 趙曉嵐은 “사의 題와 序는 엄격히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원칙을 따른다. 대략 연유를 설명하는 것을 序라고 보고 단지 시간, 장소, 사건을 설명하는 것을 題라고 본다.”⁷⁾고 하여 사제와 사서를 구별하였다. 《宋詞 題序研究》에서는 이미 제시된 제서의 정의를 종합하여, 사조와 정문 사이에 작가 본인에 의해 쓰여져, 창작한 시간과 장소, 원인 및 관련된 감정을 설명한 한 단락의 길거나 짧은 글을 제서라 하고, 짧은 글을 題, 긴 글을 序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이러한 정의는 주관적이고 임의성이 강하며 자료 통계의 정밀성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나 문학은 숫자에 의거해서 처리하는 과학과 다르다는 설명을 덧붙였다.⁸⁾ 결국 詞調와 정문 사이의 글의 長短과 구성 및 내용에 근거한 연구자의 판단으로 題序를 구별한다고 볼 수 있다.

《全宋詞》에 수록된 사인 중 蘇軾 이전의 사인 105명 가운데, 사 1수 이상에 제서를 붙인 작가는 48명이며 그 가운데 張先이 65首(총 165수, 39.39%)의 사에 제서를 남겼다.⁹⁾ 이로써 張先이 가장 먼저 사에 제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제서에 의미를 부여하여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사인은 蘇軾이다. 王易의 《詞曲史》에서 “五代宋初의 사는 詞調 아래에 題가 없었다. 그 후 사를 짓는 자들이 사조 아래에 창작 의도를 덧붙여 짓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작풍을 시작한 사람은 소식이다.”¹⁰⁾라고 하였다. 施蟄存은 “작가는 반드시 하나의 제목을 덧붙일 필요가 있었다. 이 일은 대략 蘇東坡로부터 시작되었다.”¹¹⁾

6) 馬興榮, 吳熊和, 曹濟平, 《中國詞學大辭典》, 浙江教育出版社, 1996, 9쪽.

7) 趙曉嵐, 《論宋詞小序》, 《文學遺產》, 2002, 第6期, 38쪽.

8) 張曉寧, 《宋詞題序研究》, 陝西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9, 4~7쪽.

9) 柳種睦, 《蘇軾詞研究》, 中문출판사, 1993, 310~311쪽.

10) 王易 著, 《詞曲史》, 東方出版社, 1996, 231쪽.

11) 施蟄存, 《詞學名詞釋義》, 中華書局, 1988, 93쪽.

고 하였다.

소식은 그의 편년사 292수 가운데 262조의 제서를 지었다.¹²⁾ 그의 생애를 여섯 시기로 나누었을 때 각 시기별 題序 창작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¹³⁾

時期 作品	京杭 時期	密徐 時期	黃州 時期	京師 時期	守杭 時期	再貶 時期	합계
作品	55	55	101	6	47	28	292首
題序	51	51	89	6	41	24	262條

제서를 본격적으로 창작하고 발전시킨 사인이 북송의 소식이라면, 남송의 辛棄疾은 宋代 詞人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사를 전사하였으며 題序 또한 가장 많이 지었다. 그의 생애를 다섯 시기로 나누었을 때 각 시기별 제서 창작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¹⁴⁾

- 12) 鄒同慶, 王宗堂著, 《蘇軾詞編年校註》에는 모두 403수가 수록되어 있음. 즉 편년사 292首, 미편년사 39首, 호건사 8首, 존의사 11首, 誤入蘇集詞 53首임. 본고는 그 중 편년사 292首를 연구 대상으로 함. 미편년사 39수 중 27수(1字 1條, 2字 22條, 3字 1條, 4字 2條, 8字 1條)에 詞題가 병기되어 있으나 그 중 22條가 2字로 된 사제로 “春情”, “有感”, “佳人”, “回文”, “集句” 등 단지 간단히 내용을 언급하거나 전사 방법을 밝혀두었음. 그러므로 본고의 연구 내용(記實性, 抒情性, 文學性)에 부적합하다 판단되어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13) 蘇軾 생애의 구분은 《宋詞題序研究》를 참고하였음. 즉 京杭時期(1064~1074), 密徐時期(1074~1080), 黃州時期(1080~1085), 京師時期(1086~1088), 守杭時期(1089~1093), 再貶時期(1094~1100). 각 시기별 작품 수와 題序는 鄒同慶, 王宗堂著, 《蘇軾詞編年校註》를 저본으로 필자가 재조사함.
- 14) 鄧廣銘 箋注, 《稼軒詞編年箋注》에서 신기질의 인생을 다섯 시기로 나누어, 江淮兩湖時期; 88首, 帶湖時期; 228首, 七閩時期; 36首, 瓢泉時期; 225首, 兩浙鉛山時期; 28首, 補遺; 28首를 수록하였음. 본고는 《稼軒詞編年箋注》를 저본으로 補遺를 제외한 601首를 연구 대상으로 함.

時期 作品	江淮兩湖 時期	帶湖 時期	七閩 時期	瓢泉 時期	兩浙鉛山 時期	합계
작품	88	228	36	225	24	601首
제서	68	203	30	193	16	507條

신기질은 편년사 601首 가운데 507條의 제서를 지어 전체 작품수의 84.35%를 차지한다. 신기질은 제서 창작의 양적인 면에 있어서도 전체 송사 가운데 1위를 차지하지만, 그 평가 또한 높다. 趙曉蘭은 “(신기질의) 제서와 그의 사는 같다. 신기질의 재능과 높은 창작 성취를 충분히 드러내었다. 이러한 제서는 한 가지 방식과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며, 이야기를 하거나, 사물을 묘사하고, 경치를 묘사하며, 감정을 나타내어, 하고 싶은 대로 자유자제로 지었다. 辛詞의 풍격 및 그 문학 연원은 그 題序 중에 모두 나타난다.”¹⁵⁾고 하였다.

이렇듯 소식이 題序 창작 발전의 출발점이라면 신기질은 題序 창작의 절정기의 詞人이라 할 수 있으며, 제서 창작과 송사 제서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소식과 신기질은 그들 사풍의 유사함과 후대 유사 사풍 사인들의 領袖로서 蘇辛으로 병칭되었고 宋詞史에 있어도 탁월한 성취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필자는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宋代 詞人 중 가장 중요한 작가인 소식과 신기질 詞의 題序 창작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더 나아가 송사 제서 발전 과정의 중요한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社交詞의 題序 비교; 記實性

詞人들은 기본적으로 사 창작 과정과 배경 및 원인 등의 설명을 목적으로 제서를 창작하고, 題序에 시간과 장소, 인물, 사건 등을 사실 그대로

15) 趙曉蘭, 《宋人雅詞原論》, 巴蜀書社, 1999, 278쪽.

기록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한다. 사실 그대로 기록하다 보니 題序는 다방면으로 史料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고증이 필요한 연구의 역사적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한다. 특히 “中興時期에는 題序가 대량 나타났으며 題序에서 시간, 장소, 심지어 詞作의 출처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이미 하나의 풍조가 되었다.”¹⁶⁾고 하였다.

이렇듯 記實性이 강한 題序는 독자로 하여금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당시 사회 풍속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題序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詞人들의 당시 행적과 교류 상황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시인들은 酒樓나 宴會에서 혹은 유람을 가거나 일상생활에서 詞를 지어 사람들과의 교류 활동들을 제서에 기록하였다. 이러한 제서의 창작 특징은 南宋에 이르러 더욱 확연히 나타나 王國維는 “南宋 이후 사는 또한 교류의 도구가 되었다”¹⁷⁾고 하였다.

남송의 이러한 題序 창작 특징 하에 신기질은 특히 “詞序에서 그의 인생 여정의 발전단계를 더욱 잘 나타내어”¹⁸⁾ 題序를 통해 그의 교류 활동을 엿볼 수 있다. 소식 또한 마찬가지이다. 題序에 시간과 장소, 인물 등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그의 삶과 교류 활동이 기록되었다.

필자는 제서의 記實性을 바탕으로 蘇辛詞 가운데 社交詞를 조사해 보았으며 蘇辛의 사교사 창작은 아래 표와 같다. 소식은 편년사 292수 가운데 149수의 社交詞를 지어 전체 51.03%를 차지한다.

16) 王福美, <略論南宋中興詞的“詞史”特質>,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2005年, 第3期, 60쪽.

17) “至南宋以後, 詞易爲羔雁之具.” 唐圭璋編, 《詞話叢編》·《人間詞話》, 中華書局, 2005, 4256쪽.

18) 趙曉嵐, <論宋詞小序>, 《文學遺產》2002, 第6期, 43쪽.

時期 作品	京杭 時期	密徐 時期	黃州 時期	京師 時期	守杭 時期	再貶 時期	합계
작품수	55	55	101	6	47	28	292首
사교사	37	29	47	3	25	8	149首

신기질은 편년사 601수 가운데 289수의 社交詞를 지어 전체 작품의 48.08%이다.¹⁹⁾

時期 作品	江淮兩湖 時期	帶湖 時期	七閩 時期	瓢泉 時期	兩浙鉛山 時期	합계
작품수	88	228	36	225	24	601首
사교사	45	123	14	104	3	289首

《蘇軾交遊傳》에 따르면 蘇軾과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던 士인들이 근 300여명에 이르며²⁰⁾, 그와 교류 관계를 유지한 동년배가 30명이나 된다고 한다.²¹⁾ 또한 <辛稼軒交遊考>에서는 신기질과 교류한 116명을 기록하고 있어²²⁾, 두 사람의 활발한 교류 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

蘇辛의 社交詞 題序를 분석한 결과 그 공통적 특징은 여러 가지 교류 활동 중 특히 寄贈, 唱和, 送別을 제재로 한 작품을 가장 많이 填詞하였

19) 《宋代社交詞研究》의 통계에 따르면 소식사 총 362수 가운데 132수(36.5%)가 사교사이며, 신기질사 총 629수 가운데 283수(45%)가 사교사이다. 그러나 《宋詞題序研究》에서는 신기질사 총 629수 가운데 303수(48.2%)를 사교사라고 보았고,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소식사 총 362수 가운데 152수(42%)가 사교사로 판단된다. 비록 조사자에 따라 작품의 통계수치가 다를 수 있으나, 전체 작품에서 사교사의 점유율이 높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언급하고자 함.

王偉偉, 《宋代社交詞研究》, 山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 10-11쪽.

張曉寧, 《宋詞題序研究》, 陝西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9, 101쪽.

20) 吳雪濤, 吳劍琴, 《蘇軾交遊傳》, 河北教育出版社, 2001.

21) 王水照, 《王水照自選集》, 上海教育出版社, 2000, 199~239쪽.

22) 稼軒詞集에 총 109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辛啓泰의 稼軒詞補遺에서는 총 7명이 등장한다고 함. 鄧廣銘, <辛稼軒交遊考>, 《復旦學報》 年第2期 1944, 31쪽.

고, 社交詞 대부분의 題序에서 이러한 교류 활동과 그 대상을 직접 밝혔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점은 蘇辛의 社交詞 가운데 寄贈이라고 밝힌 題序에서 나타나는 교류 대상의 차이이다.

蘇詞의 寄贈 대상은 동료, 友人, 弟子, 가족, 기녀, 무희, 侍人 등 여러 신분의 인물이 등장한다. <卜算子·自京口還錢塘, 道中寄述古太守>는 京口에서 錢塘으로 돌아가는 도중 당시 항주지주인 陳襄에게 보냈고, <沁園春·赴密州早行馬上寄子由>는 밀주지주로 부임해 가던 중 동생 蘇轍에게 보낸 詞이다. 또 <嬋人嬌·贈朝雲>은 涪州에서 단오절을 맞아 시첩 朝雲에게 지어 준 것이다. 蘇詞에서 寄贈을 목적으로 전사한 43수의 작품 중 妓女와 侍人이 그 대상인 작품이 15수에 이른다. 심지어 <減字木蘭花·贈徐君猶三侍人, 嫵卿>과 <減字木蘭花·贈勝之, 乃徐君猷侍兒> 처럼 시녀의 이름(嫵卿, 勝之)까지 직접 적어 기증의 대상을 밝혔다. 그러나 신기질의 사교사 제서에서 언급한 寄贈의 대상은 대부분이 관직 동료이며, 寄贈을 적은 81수 가운데 5수만이²³⁾ 妓女와 侍人을 대상으로 寄贈하였다.

이로써 유추할 수 있는 점은 소식이 신기질에 비해 폭넓은 교류 활동을 했다는 점이다. 소식은 “스스로 ‘위로는 옥황상제와도 함께할 수 있고, 아래로는 卑田院의 거지와도 함께할 수 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한명도 없다.’”²⁴⁾고 하였다. 즉 타인과의 교류에 있어 신분에 구애 받지 않는 자유롭고 폭넓은 교류 활동을 한 것이다. 신기질 또한 “호방하고 솔직하여 굽힐 줄 모르는 절개를 숭상하고 재능이 출중한 이들을 찾아 세상에 알려진 선비들과 많이 교류하였다.”²⁵⁾고 하여 그의 교류 활동을 알 수 있으나 題序에서도 보이듯이 주요 교류 대상의 대부분은 역시 名士들이었다.

23) <菩薩蠻-贈周國輔侍人>, <蝶戀花-席上贈楊濟翁侍兒>, <臨江仙-侍者阿錢將行, 賦錢字以贈之>, <浣溪沙-贈子文侍人, 名笑笑>, <南鄉子-贈妓>.

24) “上可陪玉皇上帝, 下可以陪卑田院乞兒. …… 眼前見天下無一箇不好人.”
丁傳靖輯, 《宋人軼事彙編》, 中華書局, 1981, 604쪽.

25) “棄疾豪爽尙氣節, 識撥英俊, 所交多海內知名士.”
[元]脫脫等撰, 《宋史·卷四百零一·列傳第一百六十》, 中華書局, 1985, 12165쪽.

蘇辛은 詞題序에 전사한 시간과 장소, 원인 등의 창작 배경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여 자연스럽게 그들의 교류생활을 엿볼 수 있었으며, 社交詞 제서에 나타나는 특징을 알 수 있었다.

Ⅲ. 폼적 및 은거시기의 題序 비교; 抒情性

소식과 신기질이 비록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공통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등용된 후 주로 지방관을 역임하며²⁶⁾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으며 누차 탄핵을 받아 파직되어 폼적 및 은거생활을 하였다. 소식은 元豐 2年(1079) 湖州에 부임하여 神宗에게 올린 <湖州謝上表>가 발단이 되어 그해 8월 御史臺의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이듬해 출옥하여 黃州에서 4년간 폼적생활을 한다. 또한 紹聖元年(1094) 高太后가 죽고 哲宗이 親政하면서 다시 貶謫승이 내려져 惠州로 가게 되고, 다시 儋州 즉 海南島까지 보내진다. 元符 3年(1100) 哲宗이 죽고 徽宗이 즉위하자 사면되어 복직되었으나 이듬해 建中靖國元年(1101)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신기질은 淳熙 8年(1181) 王蘭의 탄핵으로 파직당해 帶湖로 돌아와 은거할 때까지 근 20년간 여러 지방을 옮겨 다니며 관직생활을 하였다. 紹熙 3年(1192) 福建提點刑獄으로 기용되면서 10년간의 긴 은거생활을 끝낸다. 그러나 紹熙 5年(1194) 또 다시 파직되어 上饒로 돌아와 8년간의 은둔생활을 한다. 嘉泰 3年(1203) 다시 기용되어 관직에 나아가지만 2년 후 탄핵을 받고 파직되어 鉛山으로 돌아와 開禧 3年(1207) 68세의 나이로 병사한다.

신기질은 金에서 南宋으로 회귀한 歸正人으로, 조정에 중용되지 못하고

26) 물론 소식은 元祐元年(1086) 3월 中書舍人이 되었고, 8월에 다시 翰林學士知制誥가 되어 元祐 4年(1089) 2월까지 京師에서 정치적 득의가 가득한 시기를 보냈으나 근 3년간의 짧은 시간이었으며, 熙寧 2年(1069)에는 京師에서 判官告院의 관직을 맡게 되었으나, 熙寧 4年(1071)에 외직을 자청해 杭州通判의 명을 받아 熙寧 7年(1074)까지 근무했음.

탄핵을 받는 좌절을 맛보았으며, 소식 또한 정치적 불운으로 두 차례 꺾적 생활을 하였다.

앞의 서론 부분에서 언급한 표를 통해 두 사인의 꺾적 및 은거시기의 사 수량이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이 시기 제서는 어떤 창작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소식은 제서에 詞作 배경과 기본 정보를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였다. 제서에 나타난 작가의 감정은 작품에서 한 층 더 깊어져, 전체 사 작품의 정서를 꿰뚫고 있다. 먼저 <定風波>(莫聽穿林打葉聲)의 제서를 보자.

3월 7일 沙湖로 가는 도중에 비를 만났는데, 우비를 가진 사람이 앞서 가는 바람에 함께 간 사람들이 모두 낭패감을 느꼈으나 나만 유독 느끼지 못했다. 얼마 안 있어서 마침내 날이 개었기에 이 사를 짓는다.²⁷⁾

이 사는 소식이 황주로 꺾적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지었다. 길을 가던 도중 지나가는 소나기를 만나 비에 젖는 소소한 일을 적었다. 물론 실제 내린 비를 맞고 영감을 얻어 지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행한 꺾적생활과 같은 인생의 비바람을 의미함을 짐작할 수 있다. 비록 동행자는 낭패를 느끼지만 소식은 초연히 받아들이고, 나아가 내리는 비를 즐기는 듯하다.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거리낌이 없는 낙관적인 정서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꺾적지인 황주에서 지은 사 가운데 이와 다른 정서도 보인다.

郭生과 함께 한계에 놀러 갔는데 주부 甯亮이 술자리를 마련했다. 郭生은 만가 읊기를 좋아하는지라 술이 거나해지자 목청을 뽑았고 이로 인해 자리가 슬퍼졌다. 郭生이 자신에게 멋진 가사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므로 그를 위해 백낙천의 <寒食詩>를 조금 고쳐 노래하니 좌객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다.²⁸⁾

27) 三月七日，沙湖道中遇雨，雨具先去，同行皆狼狽，余獨不覺，已而遂晴，故作此詞。

<木蘭花令>(烏啼鵲噪昏喬木)의 이 詞序는 元豐 6年(1083)에 한식을 맞아 소식이 광생과 함께 한계로 놀러 갔다가 오량이 마련한 술자리에서 지었다. 詞序를 통해 소식의 우울하고 슬픈 정서를 엿볼 수 있다. 原詞에 나타나는 덧없는 인생에 기거하는 처량하고 괴로운 심리와 맞물려 사의 창작 배경과 과정 뿐만 아니라 작가와 참여자들의 심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醉蓬萊>(笑勞生一夢)는 元豐 5年(1082) 황주에서 중앙절을 맞은 감회를 노래한 사이이다.

나는 황주에서 폼적생활을 하면서 중앙절을 세 번 봤는데 매년 서균유 태수와 함께 棲霞樓에서 연회를 벌였다. 금년에는 서공이 이곳을 떠나게 되어 호남지방의 군수로 보내달라고 청원해 놓은지라 이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울적해 이사를 짓는다.²⁹⁾

詞序에서 보이듯, 소식은 황주에 도착한 후 3년간 매년 중앙절이면 徐君猷 태수와 연회를 벌렸다. 그러나 이번 중앙절의 연회는 평상시와 다르다. 3년 동안 폼적지에서 만나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인정 많은 태수와 헤어짐을 앞두고 있다. 그 동안 타향 객지에서 두터운 우정을 나눈 이와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작가의 진실한 감정이 나타나며, 이별을 앞두고 실의에 빠진 심정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소식은 폼적 시기의 제서에 자신의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함으로써 서정적 특징을 나타내었다.

신기절은 일생동안 장대한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어려웠고 많은 비방을 받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마음 속 가득히 쓸쓸함과 고통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수 없는 괴로운 심경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분개는 마치 목에 걸린 가시와 같아서 토해내지 않을 수 없었다.³⁰⁾ 그래서 范

28) 與郭生游寒溪，主簿吳亮置酒。郭生喜作挽歌，酒酣發聲，坐爲淒然。郭生言吾恨無佳詞，因爲略改樂天<寒食詩>歌之，坐客有泣者。

29) 余謫居黃州，三見重九，每歲與太守徐君猷會於棲霞樓。今年公將去，乞郡湖南，念此惘然，故作是詞。

開는 <稼軒詞序>에서 “공은 일세의 호걸로 氣節을 자부했으며 공업을 자부했다. 지금 用世의 뜻을 감추고 淸曠한 생활을 하고 있으나 어찌 歌詞에 뜻을 두었겠는가? 다만 마음의 울분을 풀어내는 방편일 뿐이다.”³¹⁾고 하였다. 이러한 실의와 분노로 가득한 심정은 은거시기의 작품에 잘 드러나며 제서에서도 이와 같은 정서를 엿볼 수 있다. 먼저 <八聲甘州>(故將軍飲罷夜歸來)의 詞序를 보자.

밤에 《李廣傳》을 읽고 잠을 들 수 없었다. 晁楚老, 楊民瞻과 산속에서 같이 살자고 약속한 것이 생각나, 재미삼아 李廣의 고사를 가지고 이 詞를 지어 보낸다.³²⁾

李廣은 漢武帝 때 흉노를 물리치고 변경을 넓히는 큰 공을 세웠지만 결국 불행한 세월을 보내다 서인으로 강등되어 자살한 명장이다. 신기질은 자연히 李廣과 자신의 처지가 매우 비슷하다 여겼으며 그에 대한 존경과 동질감 또한 갖고 있었다. 신기질은 파직당해 帶湖에 머물다가 한밤중에 《李廣傳》을 읽고 끓어오르는 감개에 잠들지 못하고, 속세를 떠나 같이 산속에 은거하며 살자는 벗들에게 영웅이 때를 만나지 못한 비분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로써 작가의 침울하고 복잡한 심정을 느낄 수 있다. 다음 사서를 보자.

파중의 원정은 모두 이 사로 지었다. 하루는 홀로 停雲堂에 앉아 있었는데 물소리와 산색이 다투어 나를 즐겁게 하여 마치 개울과 산이 제 모습을 뽐내는 듯 했다. 그래서 몇 자 적으니 陶淵明의 親友를 생각하는 의미와 비슷하다.³³⁾

30) 楊海明 著, 李鍾振 譯, 《唐宋詞風格論》, 新雅社, 1994, 206쪽.

31) “公一世之豪, 以氣節自負, 以功業自許, 方將斂藏其用以事淸曠, 果何意於歌詞哉, 直陶寫之具爾.” 張惠民, 《宋代詞學資料匯編》, 汕頭大學出版社, 1993, 226쪽.

32) 夜讀《李廣傳》, 不能寢. 因念晁楚老楊民瞻約同居山間, 戲用李廣事, 賦以寄之.

이 사서는 嘉泰 元年(1201) 신기질이 瓢泉에 지은 停雲堂에 대해 쓴 <賀新郎>(甚矣吾衰矣)의 序이다. 작가는 만년에 과거 후 閑居 生活에서 느껴지는 평온하고 한가한 생활의 흥취를 표현하였다. 세월은 헛되이 지나가 이미 늙었으며 장지는 실현할 수 없고 벗들도 만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경치를 유람하고 감상하면서 스스로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는 유쾌한 심정을 드러내었다. 역시 瓢泉에서 지은 <鷓鴣天>(壯歲旌旗擁萬夫)의 제서를 보자.

어떤 손님이 개탄하면서 공명을 이야기하여 젊었을 때의 일을 회상하다 재미삼아 짓다.³⁴⁾

제서에서 작가가 비록 “戲作”이라고 하였으나 진정으로 재미삼아 지은 것은 아니다. 慶元 6年(1200) 瓢泉에 머무르며 지은 이 <鷓鴣天>은 젊은 시절 사람들을 모아 金에 대항했던 과거의 거사를 회상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할 일없이 쓸쓸히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적었다. 신기질에게 과거 이 안겨다준 상실감과 더 이상 장지를 실현할 수 없는 현실의 실망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그는 戲作을 통해 자신의 무너져 내린 마음을 위로하고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의 해학사가 단순한 오락적 유희적인 즐거움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특수한 감정 표현의 한 수단인 것과³⁵⁾ 같다. 짧은 제서이지만 젊은 시절 군 생활을 추억하고 공훈을 세우고자 하는 작가의 간절한 심정을 엿볼 수 있다

蘇辛은 공통적으로 폄적 및 은거시기에 가장 많은 사와 제서를 창작하였다. 또한 이 시기 제서를 통해 두 작가의 정서를 엿볼 수 있다. 현실을 좀 더 낙관적으로 받아들여 즐기려는 심정이나, 인생의 허무감, 상실감이

33) 邑中園亭, 仆皆爲賦此詞. 一日, 獨坐停雲, 水聲山色, 競來相娛, 意溪山欲援例者, 遂作數語, 庶幾仿佛淵明思親友之意雲.

34) 有客慨然談功名, 因追念少年時事, 戲作.

35) 이동향, <소식과 신기질의 諧謔詞>, 《중국어문논총》 9輯, 1995, 135쪽.

주는 처량함 등 다양하고 복잡한 서정적 특징을 제서를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IV. 小品文으로서의 題序 비교; 文學性

송사의 제서가 詞作의 부속물로 지어진 것 외에, 일부 수준 높은 작품에서는 독립된 문학적 審美 가치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심미적 가치는 詞와 詞序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증강되어 宋詞의 題序가운데 비교적 편폭이 긴 독립된 문장이 적지 않다.³⁶⁾

당송팔대가중 한명인 소식은 뛰어난 문장가로서 사의 제서에도 자연스럽게 그의 文才가 반영되었으며, 비교적 편폭이 긴 詞序는 독립된 小品文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蘇詞 題序의 長短을 살펴보면 10字 이하의 제서가 가장 많다. 그러나 26字 이상의 긴 詞序 또한 적지 않다. 제서 창작이 가장 많은 황주시기에 소식은 27條의 제서를 지었고 그 중 50字 이상의 詞序가 11條나 된다. 소사 제서의 字數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時期 字數	京杭 時期	密徐 時期	黃州 時期	京師 時期	守杭 時期	再貶 時期	합계
5字 이하	27	25	34	2	20	19	127
10字 이하	12	16	22	3	15	1	69
15字 이하	7	6	1	0	4	2	20
20字 이하	3	1	2	0	0	0	6
25字 이하	1	0	3	0	0	0	4
26字 이상	1	3(1) ³⁷⁾	27(11)	1(1)	2(1)	2(1)	36

36) 鄭誠, 《宋詞題序研究》, 鄭州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48쪽.

37) ()안의 숫자는 50字 이상의 詞序임.

그럼 단지 작품의 부가적 정보와 설명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뛰어난 문재를 발휘한 소식의 題序를 보자. <水龍吟>(小舟橫截春江)의 序이다.

대부 公顯 閻丘孝終께서 일찍이 황주지주로 계실 때 棲霞樓를 지어 그것이 이 고을의 절경이 되었다. 元豐 5년에 나는 황주에서 폼적생활을 하고 있었다. 정월 17일 꿈에 일엽편주를 타고 강을 건너 강 가운데 이르러 돌아보니 누각에서 노랫소리와 악기소리가 뒤섞여 나고, 배 안에 있던 사람이 閻丘公顯이 손님을 모아 연회를 벌인다고 했다. 꿈에서 깬 뒤 기이하다 여겨 이사를 지었다. 여구공현은 이때 이미 벼슬에서 물러나 蘇州에 있었다.³⁸⁾

소식이 熙寧 7年(1074) 蘇州에서 옛 벗인 閻丘孝終 대부의 집에서 술을 마신 일이 있었는데, 그 후 황주로 폼적을 온 元豐 5年(1082) 여구효종이 황주지주를 지낸 일이 떠올라 이 詞를 지어 그를 그리워하였다. 詞序에서 소식은 참신한 구상 수법으로 꿈속에서 벌어진 잔치를 묘사하였다. 일엽편주를 타고 강 가운데 도착해, 한 누각에서 연회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치 신선이 사는 아름다운 세상과 같은 모습이다. 꿈과 현실을 오가며 적어낸 광경에서 옛 벗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詞序는 作詞한 연유와 내용 및 구성을 말해 독자로 하여금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이 사서는 현실과 다른 환상의 모습을 잘 표현한 한 편의 小品文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었다.

소식이 지은 詞序 중 가장 긴 것은 213字로 <水龍吟>(古來雲海茫茫)에 병기한 것이다. 이 詞는 元豐 7年(1084) 겨울에 司馬承禎과 李白의 일을 상상하여 지은 이야기이다. 詞序를 보자.

38) 閻丘大夫孝終公顯, 嘗守黃州, 作棲霞樓, 爲郡中勝絕. 元豐五年, 余滴居於黃. 正月十七日, 夢扁舟渡江, 中流回望, 樓中歌樂雜作, 舟中人言, 公顯方會客也. 覺而異之, 乃作此詞. 公顯時已致仕, 在蘇州.

옛날에 謝自然이 바다를 건너 蓬萊山에 가서 스승을 찾으려고 했다. 바다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謝自然에게 “蓬萊山은 약수 너머 30만 리나 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갈수가 없습니다. 天台山에 司馬子微라는 사람이 있는데 몸은 적성에 있지만 신선의 궁궐에 이름이 올라 있으므로 찾아가서 스승으로 삼을 만합니다”라고 했다. 그리하여 사자연이 되돌아와서 司馬子微에게 도를 전수받고 대낮에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 司馬子微는 《坐忘論》 7편과 《樞》 1편을 지었으며 나이가 백 살이 넘어서 세상을 떠나려 할 때 제자에게 “내가 玉霄峰에 있을 때 동쪽으로 蓬萊山을 바라보니 참된 영기가 내려왔는데 이제 동해 청동군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고는 승천했다. 그 뒤에 이태백이 <大鵬賦>를 지어 “옛날 강릉에서 司馬子微를 만났는데 나에게 신선의 풍채와 도인의 골격이 있어서 함께 팔극의 바깥에서 정신적으로 노닐 수 있겠다고 했다”라고 했다. 元豐 7年 겨울 내가 臨淮에 들렀더니 잠연선생 양공이 계셨는데 동안이 해맑아서 마치 20, 30대 정도 되는 사람 같았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그를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鐵笛을 잘 불어 구름을 뚫고 바위를 깨뜨리는 낭랑한 소리를 내었다. 이제 <水龍吟> 한 수를 지어서 司馬子微와 이태백의 일을 기록하고 그 곡조에 맞추어 노래한다.³⁹⁾

소식은 詞序에서 謝自然 여도사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司馬子微가 백 살이 넘어 승천하였다는 허구와, 이태백이 <大鵬賦>을 지은 사실을 오가며 이야기하였다. 독립된 문장으로서의 내용과 구조를 갖추고 있어 詞序 전반에 문학적 요소가 다분히 드러나 마치 한 편의 단편 소설과도 같다. 또 소식이 黃州에서 崔閑의 부탁을 받아 지은 <醉翁操>(琅然)의 詞序를 보자.

39) 昔謝自然欲過海求師蓬萊，至海中，或謂自然，蓬萊隔弱水三十萬里，不可到。天台有司馬子微，身居赤城，名在絳闕，可往從之，自然乃還，受道於子微。白日仙去，子微著《坐忘論》七篇，《樞》一篇，年百餘，將終，謂弟子曰：吾居玉霄峰，東望蓬萊，嘗有眞靈降焉，今爲東海青童君所召，乃蟬脫而去。其後李太白作<大鵬賦>云：嘗見子微於江陵，謂余有仙風道骨，可與神遊八極之表。元豐七年冬，余過臨淮，而湛然先生梁公在焉，童顏清徹，如二三十許人，然人亦有自少見之者，善吹鐵笛，嘹然有穿雲裂石之聲，乃作<水龍吟>一首，記子微太白之事，倚其聲而歌之。

琅琊山의 깊숙한 계곡은 산천이 기이하고 아름다운데 텅 빈 계곡에서 샘물 소리가 울려 마치 음률이 잘 맞는 것 같다. 醉翁은 그것을 좋아하여 술잔을 들고 내려다보며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마다 기분이 흐뭇해져 집으로 돌아가기를 잊었다. 그 분이 세상을 떠나신 지 10여년이 되어 호기심 많은 선비 沈遵이 소문을 듣고 그곳에 가서 유람한 뒤에 거문고로 그 소리를 묘사하여 <醉翁操>라고 명명한 곡조는 절주가 시원스럽고 소리에 담긴 취지가 잘 드러나 거문고를 아는 사람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여기는데 안타깝게도 곡조만 있고 가사가 없다. 취옹이 비록 그 곡조에 가사를 짓기는 했으나 거문고와 어울리지 않으며 또 취옹이 초사 형식을 빌려 <醉翁引>을 짓고 호사가가 그것을 바탕으로 고조를 지은 것도 있어 대체로 그 운치와 어울리기는 하나 거문고 소리가 가사의 제약을 받아 자연스럽게 못하다. 그 뒤로 30여 년이 지나 취옹도 세상을 떠나고 沈遵도 죽은 지 오래되었을 때 거문고의 묘수인 여산의 옥간도인 崔閑이 곡조에 가사가 없는 것을 늘 한탄하다가 그 소리를 채보하여 동파거사에게 청하기에 가사를 보충한다.⁴⁰⁾

이 詞序를 통해 소식이 歐陽脩와 沈遵을 존경하고 그리워하여, 그들이琅琊山을 노래한 <醉翁引>을 완벽하게 개조하고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소식은 <醉翁操>가 만들어진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면서 작품에 병기된 題序라기 보다는 한 편의 문장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小品文을 완성하였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琅琊山의 뛰어난 경치와 이를 즐기는 취옹을 묘사하였으며 전체적 이야기의 구성 또한 문학적 요소가 다분하다. <西江月>(照野瀾瀾淺浪) 序에는 더욱 진한 문학성이 엿보인다.

어느 봄날 밤에 기수현의 산속을 지나다 술집에 들러 술을 마시고 취해

40) 琅琊幽谷, 山川奇麗, 泉鳴空澗, 若中音會, 醉翁喜之, 把酒臨聽, 輒欣輒然忘歸. 既去十餘年, 而好奇之士沈遵聞之往遊, 以琴寫其聲, 曰<醉翁操>, 節奏疏宕而音指華暢, 知琴者以爲絕倫, 然有其聲而無其辭. 翁雖爲作歌, 而與琴聲不合. 又依楚詞作<醉翁引>, 好事者亦倚其辭以製曲. 雖粗合韻度而琴聲爲詞所繩約, 非天成也. 後三十餘年, 翁既捐館舍, 遵亦沒久矣. 有廬山玉潤道人崔閑, 特妙於琴, 恨此曲之無詞, 乃譜其聲, 而請於東坡居士以補之云.

달빛을 타고 어느 개울에 놓인 다리 위로 가서 말의 안장을 풀고 팔을 베고 누워 잠시 쉬었다. 깨어보니 벌써 새벽이 되어 높고 낮은 산에 초목이 무성한 것이 속세가 아닌 것 같아 다리 기둥에 이사를 쓴다.⁴¹⁾

元豐 5年(1082)에 黃州 부근의 蕪水縣을 유람하다 술에 취해 다리 위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난 뒤의 느낌을 적은 詞序이다. 이 사서를 통해 독자들은 고요하고 적막한 밤에 달빛이 비추어 금빛 비늘처럼 반짝거리는 물결이 이는 蕪水에서 새벽을 맞이하는 작가를 상상하며 작품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즉 작품을 읽기 전에 이미 그 아름다움 경지를 느낄 수 있다. 소식은 사의 배경과 내용을 생동적으로 묘사하면서 자신의 曠達한 심정과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신기질 또한 10字 이하의 체서를 가장 많이 지었는데, 총 360條나 된다. 또한 26字 이상의 비교적 편폭이 긴 詞序는 총 31條이며, 사 창작이 가장 활발했던 帶湖와 瓢泉時期에 지은 체서 중 각각 10條와 17條가 있다.

時期 字數	江淮兩湖 時期	帶湖 時期	七閩 時期	瓢泉 時期	兩浙鉛山 時期	합계
5字 이하	30	62	11	54	1	158
10字 이하	21	85	8	76	12	202
15字 이하	10	30	4	23	3	70
20字 이하	2	11	4	16	0	33
25字 이하	2	2	2	7	0	13
26字 이상	3	10(3)	1(1)	17(10)	0	31

먼저 淳熙 15年(1188) 벗인 陳亮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적은 <賀新郎> (把酒長亭說)의 序를 보자.

41) 春夜行蕪水中過酒家，飲酒醉，乘月至一溪橋上，解鞍鞍曲肱少休。及覺已曉，亂山葱蘢，不謂人世也，書此詞橋柱上。

陳同父가 東陽에서 나를 찾아와 열흘 간 머물며 같이 鵝湖에서 놀고, 朱晦菴과 紫溪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그가 오지 않자, 표연히 東으로 돌아갔다. 이별한 다음 날, 내 마음 속에 그를 잊지 못하여, 그를 쫓아가려고 鷺鷥林에 이르렀으나, 눈은 깊고 진흙길은 미끄러워 더 나 갈 수 없었다. 홀로 方村에서 술을 마시며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그를 만류하지 못한 것을 한탄했다. 밤중에 吳氏의 泉湖 四望樓에 묵었는데 슬픈 피리 소리가 들려 <乳燕飛>(賀新郎)을 지어 내 뜻을 나타냈다. 닷새 후 同父가 편지를 보내와 내 詞를 청하니, 서로의 마음이 이처럼 같은 것을 보고 千里 밖에서 웃었다.⁴²⁾

이 詞序는 <賀新郎>이 신기질 사 가운데 명편으로 꼽히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간결하고 유창한 언어로 사인과 진량이 서로 만나 같이 노닐다 헤어진 후 그리워하는 것을 서술하였으며, 한 편의 완벽한 산문이다.⁴³⁾ 사서의 내용이 작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原詞와 서로 보완 발전하는 관계에 있다. 사서는 벗을 그리워하는 침울함을 나타내었으며 전사하게 된 배경을 사실대로 서술하고 있다. 다음 <山鬼謠>(問何年此山來此) 序를 보자.

우암에 바위가 있었는데 모양이 너무나 기이하여 이소 구가의 뜻을 취해 山鬼라 이름 짓고 <摸魚兒>를 따라 지은 후 지금의 調名으로 고친다.⁴⁴⁾

이 <山鬼謠>는 淳熙 14年(1187) 전후 과직당하여 帶湖에 머무를 때 博山寺 부근의 雨巖에서 填詞한 것이다. 雨巖에 거대한 바위가 있었는데 작

42) 陳同父自東陽來過余，留十日，與之同遊鵝湖，且會朱晦菴於紫溪，不至，飄然東歸。既別之明日，余意中殊戀戀，復欲追路，至鷺鷥林，則雪深泥滑，不得前矣。獨飲方村，悵然久之，頗恨挽留之不遂也。夜半投宿吳氏泉湖四望樓，聞隣笛悲甚，爲賦乳燕飛以見意。又五日，同父書來索詞，心所同然者如此，可發千里一。

43) 朱德才等 編著，《辛棄疾詞新釋輯評》，中華書局，2006，586쪽.

44) 雨巖有石，狀怪甚，取離騷九歌，名曰山鬼，因賦摸魚兒，改今名。

가가 《離騷·九歌》에서 인간과 신의 사랑을 읊은 방법을 취해 山鬼라 이름 짓고 이 바위와 “정신을 통하고 마음을 허락한다”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原詞에 나타내었다. 만약 詞序에서 사의 주요 대상인 바위에 구가의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설명이 없었다면 원사의 의미가 모호해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魚計亭을 적은 <哨遍>(池上主人)의 序는 223字로 辛詞의 題序 가운데 가장 긴 詞序이다.

趙昌父의 고조부 趙叡 學士가 퇴직하여 鄭圃에 머물렀다. 魚計라는 이름의 정자가 있었는데 宇文叔通이 古賦를 지었다. 지금 昌父의 아우 成父가 鑿池에 머무르며 정자를 지어 옛 이름으로 편액을 걸었다. 昌父가 成父를 위해 시를 짓고 나에게 詞를 짓길 부탁해 내가 <哨遍>을 지었다. 장자가 “개미가 양고기를 쫓은 지혜를 버리고, 물고기가 물에서 서로 거품을 품어 적셔주는 피를 버리고, 양이 노린내로 개미를 유혹하는 사심을 버린다.”고 하였는데 그 뜻이 훌륭하다. 그러나 이 문장 윗부분에서 돼지에 붙은 이는 불타고, 개미가 좋아하는 양고기는 불구가 된다 했고, 아래 문장에서는 두 가지 뜻을 같이 묶어서, 돼지의 이는 그냥 두고 말하지 않고 단지 물고기만 논하였다. 그 뜻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다. 또 양과 개미 두 구 사이에서 양과 개미의 뜻을 나누면 무슨 이치인지 알 수 없으니 어찌서인가? 그 반드시 깊은 뜻이 있으나 후인들이 알지 못할 뿐이다. 혹자는 개미가 물에 빠지면 죽고, 양이 물에 빠지면 병이 나며, 물고기가 물에 있으면 산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억지로 둘러맞춘 것으로 이치와 취지가 될 수 없다. 내가 일찍이 거듭 헤아려 보았는데 결국 알 수 없었다. 세상에 반드시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는 자가 있으리라 생각되며, 훗날 그를 만난다면 물어 볼 것이다. 우선 이 詞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먼저 적는다.⁴⁵⁾

45) 趙昌父之祖季思學士，退居鄭圃，有亭名魚計，宇文叔通爲作古賦。今昌父之弟成父，於所居鑿池築亭，榜以舊名，昌父爲成父作詩，屬余賦詞 余爲賦哨遍。莊周論“於蟻棄知，於魚得計，於羊棄棄意”。其義美矣。然上文論蟲託於豕而得焚，羊肉爲蟻所慕而致殘，下文將併結二義，乃獨置豕蟲不言而遽論魚。其義無所從起。又問於羊蟻兩句之間，使羊蟻之義離不相屬，何耶？其必有深意存焉，顧後人未之

이 사서는 편폭이나 내용상 한 편의 산문에 가깝다. 이 사를 전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莊子·徐無鬼》의 문장을 근거로 들어서 魚計의 뜻을 풀어보려 하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음을 적었다. 문채의 수식이나 아름다움보다 魚計의 뜻을 분석하고자 하는 과정을 논리적이면서도 솔직 담백하게 적은 논설문이라 해도 무방하다.

신기질 또한 편폭이나 구성으로 보았을 때 독립된 小品文으로서의 詞序를 지었으나 蘇詞의 詞序와는 조금 다르다. 辛詞의 詞序는 아름다운 문채의 小品文으로서의 면모보다, 詞作 의도와 작품을 설명하는 산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것은 소식과 신기질의 서로 다른 작품 태도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라 사료된다.

소식은 “以詩爲詞”의 作詞 태도로 詞를 詩化하여 시로써 노래할 수 있는 감정은 사로도 노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의 제재를 확대하고 내용을 해방하여, 개인의 감정을 적극 토로하며 詞의 豪放 풍격을 발전시켰다. 또한 여러 수사기교를 활용하는 등 詩의 형식을 詞에 활용하였다.⁴⁶⁾ 신기질은 “以文爲詞”의 作風으로 산문의 기교와 정신을 사문학 예술 표현에 융화시켜 韻體의 詞와 散體의 文을 통일하였으며, 완곡하게 감도는 기세로 情을 묘사하였던 전통 사의 作詞法을 바꾸어 침착하고 통쾌한 기세를 사에 불어 넣었다.⁴⁷⁾ 즉 “소식은 詞로써 詩를 쓰고, 신기질은 詞로써 論을 썼다.”⁴⁸⁾라는 특색이 題序의 창작 특징에도 자연히 반영되었다. 또한 題序가 原詞에 병기되어 詞調 혹은 詞題의 서술이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했다고 여길 때 다시 詞題를 연장한 詞序를 지어 詞의 창작 원인, 배경, 격식, 방법 등을 설명하기⁴⁹⁾ 위한 보조적 수단이긴 하지만, 그 또한

曉耳。或言蟻得水而死，羊得水而病，魚得水而活，此最穿鑿，不成義趣。余嘗反覆尋繹，終未能得。意世必有能讀此書而了其義者，他日倘見之而問焉。姑先識余疑於此詞云爾。

46) 소식 지음, 류종목 역해, 《蘇東坡詞》,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903~912쪽.

47) 楊海明 著, 李鍾振 譯, 《唐宋詞風格論》, 新雅社, 1994, 221쪽.

48) “東坡爲詞詩, 稼軒爲詞論.” 吳梅, 《詞學通論》, 中國書籍出版社, 2006, 116쪽.

하나의 문체로써 題序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중, 문자 본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 반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므로 序는 높은 수준으로까지 발전되어 詩詞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小品文으로 간주 될 정도로 높은 문학적 성취를 거두었다.⁵⁰⁾ 비록 蘇辛의 作詞 태도와 기교 및 표현에 차이가 있으나 그들의 題序에 문학적 특성이 존재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V. 나가며

소식 이전의 사인 가운데 張先이 65首의 사에 제서를 병기해 가장 먼저 제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으나, 본격적으로 제서를 사용하고 발전시킨 사인은 소식이다. 소식이 제서 창작 발전의 출발점이라면 신기질은 제서 창작의 절정기의 사인이며 송사 제서 발전 과정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시간과 장소, 인물, 사건 등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제서는 독자로 하여금 사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사인들의 당시 행적과 교류 상황을 알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한다. 소식과 신기질은 그들의 거의 모든 社交詞에 제서를 병기해 교류 대상과 활동을 기록한 공통점이 있다. 여러 가지 교류 활동가운데 寄贈을 제재로 한사와 제서가 가장 많은데, 특이한 점은 두 사인의 기증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소식이 기증한 대상은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으나 신기질은 名士들을 위주로 기증하였다. 이로써 그들의 교류 활동의 활발함과 그 대상을 볼 수 있었다.

또한 蘇辛은 비록 다른 시대에 살았으나 공통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껌적과 은거생활이다. 두 사인은 과직당해 은거생활을 하면서 사 작품뿐만 아니라 제서에도 그들의 정서를 표현하였다. 현실을 즐기려는

49) 張海鷗, <論詞的敘事性>, 《中國社會科學》 2004年 第二期, 152쪽.

50) 施蛰存, 《詞學名詞釋義》, 中華書局, 1988, 94쪽.

심정이나 인생의 허무함과 상실감이 주는 처량함 등 다양하고 복잡한 정서를 제서에 나타내어 서정적 특징을 가진다.

사와 제서가 발전함에 따라 제서는 독립된 小品文으로써의 문학성을 가지게 되었다. 문재가 뛰어난 소식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제서를 짓고, 신기질 또한 자신의 作風에 근거하여 사서를 지음으로써 한편의 산문으로 손색이 없는 문학성이 다분한 小品文을 지었다.

즉 詞가 발전함에 따라 음악성이 소실되고 내용이나 제재 등도 복잡해지면서 詞人들은 詞意의 전달을 위해 제서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제서 창작 초기 단계에 가장 확연히 나타나는 제서의 記實性을 시작으로, 作詩의 전유물이었던 제서의 창작이 作詞의 한 방법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면서 사인의 정서를 표현하기도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문학성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결국 후기의 사서가 전기에 비해 전체적으로 더욱 아름답다워졌으며 또한 송사 자체의 문학성에도 일조 하였다.

이상 소식과 신기질의 詞題序를 비교하여 그들의 창작 특징에 따른 공통점과 다른 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송사 제서 발전 과정의 일면을 볼 수 있었다.

<References>

- Deng Guangming. *The Chronological Life of Jia Xuan'Ci*. Shanghai: Shanghai chinese classics publishing house, 1993.
- Ding Chuanjing. *Songren Yishi Huibian*. Beijing: Zhonghua publishing house, 1981.
- Lee Donghyang. "A Study on the Humorous Ci of Su Shi and Xin Qiji".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9(1995):135.
- Lee Jongjin. *Tang Song Ci Fenggelun*. Shinasa, 1994.
- Lee Taehyung. *Xin Qiji Ci Ji*. Hakgobang, 2010.

- Ma Xingrong. *A Grand Dictionary on Chinese Ci Poetry Research*. Hangzhou: Zhejiang Education Publishing House, 1996.
- Qin Ding Si Ku Quan Shu Zong Mu. Beijing: Zhonghua publishing house, 1997.
- Ryu Jongmok. *Su Dong po Ci*. Seoul University Press, 2011.
- Ryu Jongmok. *The study of SuShi'Ci*. Zhongwen Publishing house, 1993.
- Shi Zhecun. *Cixue Mingci Shiyi*. Beijing: Zhonghua publishing house, 1988.
- Tang Guizhang. *Cihua Congbian*. Beijing: Zhonghua publishing house, 2005.
- Tuo Tuo. *Song Shi*. Beijing: Zhonghua publishing house, 1985.
- Wang Fumei. "Make on the history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Song Shi' features". *Journal of Graduate School of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3. 2005.
- Wang Shuizhao. *The WangShuizhao's selection*. Shanghai: Shanghai Education Publishing House, 2000.
- Wang Weiwei. *The study of Social Intercourse Ci-Poems of Song Dynasty*. Shandong Normal University Ph.D. thesis, 2010.
- Wang Yi. *The history of Ci and Qu*. Beijing: Dongfang Publishing House, 1996.
- Wu Mei. *Cixue Tonglun*. Beijing: Chinese Books Publishing House, 2006.
- Wu Xuetao. *SuShi Jiaoyou Zhuan*. Shijiazhuang: Hebei Education Publishing House, 2001.
- Zhang Haiou. "The Narrativity of Ci". *Chinese Social Sciences* 4. 2002.
- Zhang Huimin. *Songdai Cixue Ziliao Huibian*. Shantou: Shantou University publishing house, 1993.
- Zhang Xiaoning. *The study of Song Ci's prefaces*. Shanxi Normal

University, Ph.D. thesis, 2009.

Zhao Xiaolan. "The study of SongCi Xiaoxu". *Literary heritage* 6, 2002.

Zhao Xiaolan. *Songren Yaci Yuanlun*. Chengdu: Bashu Publishing House, 1999.

Zheng Cheng. *The study of Song Ci's prefaces*. Zhengzhou University Master thesis, 2008.

Zhu Decai. *Annals and Rectification of Xin Qiji'Ci*. Beijing: Zhonghua publishing house, 2006,

Zou Tongqing. *Annals and Rectification of Su Shi'Ci*. Beijing: Zhonghua publishing house, 2007.

<Abstract>

It can be said that Zhang Xian was beginning to write the preface of Ci. But in general, the starting point of the development and creative of Ci's preface was Su Shi. Xin Qiji was at the crest of writing Ci's preface. They also have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Song Ci's prefaces. The poet wrote down at the preface such as time, place, figures and events. This helped the reader understand the work, also has become a basis information to know the poet's past and exchanges. Su Shi and Xin Qiji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wrote the Ci's preface in front of every Social Intercourse Ci. The most contents of the Ci's preface is send to someone, but that target is not the same. Su Shi send to people of every condition, comparably Xin Qiji usually send to social celebrity. Although they lived in different times, but they have a common experience which was the life of relegation and seclusion. After they were relieved of there office,

expressed the emotions and the feelings they have inside in Ci and Ci's prefaces. They enjoyed life to the full, also felt a sense of emptiness and loss of life, wrote complex emotions out in Ci's preface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i and the Ci's preface, the prefaces had literary merit as the short essay. Su Shi has a talent for writing, naturally wrote the preface to display his ability. Xin Qiji also in the way of his own wrote the preface. According to this study, can find out one side of the Ci's preface development process.

Key Words : 蘇軾詞(Su Shi's Ci), 辛棄疾詞(Xin Qiji's Ci), 題序(prefaces)